

小레코드圖書室을 爲한 簡易資料 整理法(I)

孫 正 彪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

1. 머 릿 말

필자는 지금까지 4년간에 걸쳐 국문목록의 발전을 위한 한 시안으로서 레코드의 목록규칙안과 분류표 및 서술시대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국을 비롯하여 기타 도서관 1,000여매 이상의 레코드를 소장한 도서관 10여곳의 정리현황과 개선점에 관해 관계 기관지들에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논문들을 준비하기 위해 필자 자신이 순방한 도서관들의 정리현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리라고 하기 보다는 아직도 부족된 감을 여러면에서 엿볼 수 있었다. 레코드자료 1,000여매 혹은 10,000여매라면 결코 적은 자료는 아닐 것이다. (註 : 1969년 12월말 현재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방송 5,000매, 중앙방송 7,000매, 동아방송 10,000매, 동양방송 10,000매, 문화방송 10,000매, 미팔군방송 1,000매, 미국공보원 1,500매, 미팔군도서관 2,600매, 중앙시청각교육원 1,000매, 연세대학교도서관 600매,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300매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실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밝히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오늘 날에는 LP판이 대량으로 보급되어 레코드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테이프레코드의 경우 역시 1 reel 1 곡 주의가 아니고 보통 3~4곡 이상을 취입하고 있어 이를 단행본으로 환산한다면 4,000 혹은 40,000 title 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적지않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기술적인 면에 결여를 보여주고 있음은 정서교육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도서관에서는 아직도 일반화되지 않고 소외되고 있는 경향도 있겠지만, (註 : 1970년판 한국교육년감의 통계를 보면 국민학교 총수 5,810개교, 중학교 1,463개교, 고등학교 861개교, 대학교 208개교로 이의 레코드 소장량에 대한 1969년도 문교통계년보의 통계는 국민학교 테이프 7,741권, 음반 79,221매, 중학교 테이프 8,550권, 음반 35,155매, 고등학교 테이프 6,426권, 음반 26,854매, 대학교 테이프 10,552권, 음반

14,142매라 밝히고 있다. 이의 1개교당 소장량은 국민학교 테이프 약 1.3권, 음반 14매, 중학교 테이프 약 6권, 음반 약 25매, 고등학교 테이프 약 7권, 음반 약 31매, 대학교 테이프 약 51권, 음반 약 68매로 모두 평균 100매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료정리에 필요한 tool 의 부족이나 미개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코드정리의 tool 을 보면 대체로 목록관계는 ALA Music Library Association 에서 내놓은 “Code for Cataloging Music and phonorecord”와 Library of Congress 에서 내놓은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pp. 75~95의 Music(악보)에 의하여 그 기본적인 규칙을 삼고 있으며 분류관계는 그나마 표준화된 표가 없으므로 인하여 독립된 레코드도서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독자적 방법에 의해 20~40개의 항목에 전자료를 집약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칙은 모두 구문주의에 의한 관계로 음반 전문가들을 제외한 일반 음악애호가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는 언어적인 장애를 해소시켜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규칙의 작성이나 이에 관한 논문들이 지상에 발표되어 있지 않아 상기한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 접할 경우에 야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충분히 강구해 주지 못하고 있다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시청각교육의 육성책을 시도하고 있는 문교부방침에 따른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소장된 자료에 대한 정리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해 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당면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소도서관을 위한 레코드의 정리에 관한 줄고를 발표코자 한 것이다.

2. 분 류

레코드의 분류는 도서의 분류와는 달리 몇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도서의 분류는 서가상의 분류와 목록상의 분류를 일치시켜 일원화된 조직적인 방

법에 의해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나 레코드는 그것이 갖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도서관서가의 분류를 해줄 것인가 혹은 목록상의 분류(혹은 주제명목록)만으로 그칠 것인가 하는 서가상의 분류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또한 분류학자들간에 하나의 의제로 남아있다. 이에 관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일본의 關晶씨는 “레코드의 경우는 크기별 수입순배가를 행하는 것이 실제적이며……” (註: 關晶 編, 視聽覺ライブラリ, 日本図書館協會 1966. p. 155 참조)라 하고, 영국의 Bryant씨는 “일반이용자가 직접 서가에서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서가상의 분류가 거의 필요치 않다(註: Bryant, E.T. Music Librarianship. London, Clarke, 1959. p. 244 참조)하고 미국의 Akers씨는 “레코드는 깨지기 쉽기 때문에……주제분류법에 의하여 배열할 만 하지 못한 것 같다.(註: Akers, S.G. Simple Library Cataloging. Chicago, ALA, 1954 p.153 참조)고 하고, 미국의 Wohlford씨는 그의 논문 A Study of Record Collections in Public Libraries of the U.S. and Canada에서 여러 미국도서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배열방법을 8가지로 나누어 분류표에 의한 배열과 작곡자의 알파벳순 및 기타 수입순식에 의한 배열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註: Bryant, E. T. 上掲書 p. 246 참조)

위의 몇가지의 견해만 살펴더라도 레코드의 서가상의 분류의 채택여부에 관한 논란은 가히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첫째, 온도와 습도의 상태에 의한 판의 휘어짐이나(註: 레코드의 보관에 적합한 온도는 $21^{\circ}\text{C} \pm 3^{\circ}\text{C}$ 이며 습도는 $50\% \pm 10\%$ 이다) 압력 및 유동성의 방지를 요하는 관계로 고정식배가를 하여야 하며, 둘째 레코드는 서가상에서 일목요현하게 분류기호를 판별하기 어려우며, 세계 레코드는 표면과 이면이 상이한 독립된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관계로 표면만의 분류는 이면의 분류를 무시하게 된다는 3가지의 이유를 들어 서가상의 분류보다는 목록상의 분류만으로 그치고 그대신 수입순식에 의한 고정식배가법을 주장하고 싶다.

1. 합가상의 자료배열에 관한 효율적 방법

유동성에 의하여 오는 판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가상의 자료배열 방법으로는 대체로 크게 나누어 회전수에 따른 배가법과 크기에 따른 배가법을 들 수 있다.(註: 수입순식 배가법을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유형에 대하여는 필자의 줄고 “레코드의 분류 및 합가번호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1968년 10월호 참조)

필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는 크기만에 의한 방법과 회전수와 크기의 병용에 의한 방법의 두가지로 나누어 취급한 것이다.

ㄱ. 레코드의 크기에 의한 배가법

이는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먼저 회전수를 고려함이 없이 레코드의 크기에 따라 구별하여 30cm는 (12in 78회전, $33\frac{1}{3}$ 회전, $16\frac{2}{3}$ 회전이 있음) A—L, 25cm (10in 78회전, $33\frac{1}{3}$ 회전, $16\frac{2}{3}$ 회전이 있음)는 M—Q, 17cm (7in $33\frac{1}{3}$ 회전, 45회전이 있음)는 R—X, 40cm (16in $33\frac{1}{3}$ 회전에만 있는 것으로 transcription disc임)는 Y, 앨범은 Z로 임의의 문자를 주어 5구분하고 각각의 문자아래 수입순식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30cm 판은 A 1.1, 1.2…1.0, 2.1, 2.2…2.0등으로 하고 25cm 판은 M 1.1, 1.2…1.0 2.1, 2.2…2.0등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A, M, R, Y, Z의 문자는 일정한 크기별로 구분해 놓은 케비넷함열(函列)을 나타내는 기호로 문자와 문자사이를 많이 띄어 놓은 것은 추가될 자료량을 고려하여 취해진 방법이며, 한문자와 다른 문자사이는 100구분한 것이다. 1.1, 1.2, 1.3…등의 숫자는 이들 개개의 순차적 번호를 나타낸 것으로 1개의 숫자를 10구분하여 레코드함의 일단 혹은 일열(一列)에 10배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취해진 방법으로 최상단은 1.1, 1.2…1.9로 하고 10번째는 1.10으로 하지 않고 1.0으로 하였다. 그리고 11번째는 다시 단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2.1부터 시작하여 2.0까지, 21번째는 3단의 1로 3.1부터 3.0까지, 100번째는 10.0, 101번째부터는 문자를 바꾸어 B 1.1, 1.2…10.0으로, 201번째 부터는 C 1.1, 1.2…10.0등으로 한다. 특히 이들 문자는 임의로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의 자료 집성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테이프의 경우는 상기의 문자에 의한 식별보다 T자(top의 자)아래 상기의 숫자를 부가하는 것이 좋다.

ㄴ. 회전수와 크기의 병용에 의한 방법

이 방법은 미국 Detroit 공공도서관의 방법을 개조한 것으로 78회전(SP)을 S, $33\frac{1}{3}$ 회전(LP)을 L, 45회전회전(EP) E, $16\frac{2}{3}$ 회전(SR)을 R, 앨범을 A로 영자명 두문자를 채기하고 그 다음 회전수내에서의 크기에 따라 ㉠의 방법처럼 식별해 놓은 문자에 의한 구별과 수입순식 일련번호를 병기한다. 예를 들면 78회전 30cm 판을 A라 하면 SA 1.1, 1.2…처럼 기입한다.

2. 분류목록을 위한 레코드분류표와 주제명색인

전술한 바 처럼 레코드는 그 물리적 특성에 따라 합가상의 분류가 곤란하므로 그대신 목록상의 분류나 주제

명목록의 철저가 고려되고 있다. (주제명표목표에 관하여는 차기에 기회있는데로 발표코자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부분의 음반도서실의 현황을 보면 합가상의 분류만을 위주로 하고 분류목록은 작성해주지 않고 있다. (註: 필자의 즐고 “우리 나라 음반도서실 현황과 개선점” 국회도서관보 1970년 3월호 참조)

이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면을 고려하여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목록상의 분류는 대체로 기존된 분류표에 의한 방법과 레코드용 특수분류표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도서의 분류에서 이미 십진 혹은 비십진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분류표에 대한 이해를 이중적으로 하지 않고 통일을 기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특히 음악의 이론과 문헌 및 악보 등을 이와 관련된것기 위하여 취해진 방법인 것 같다. 그러나 이처럼 도서에서 사용되는 분류표를 사용하게 되면 레코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악에 대량적으로 집중되게 되어 이용상이나 사무상 불편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립도서관보인 “도서관”1970년 7~8월호에 “레코드의 분류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대도서관용 레코드십진분류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고로 여기서는 류·장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여기서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 것은 3,000메이하의 소도서관의 경우에는 대도서관용분류표를 완전히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코드자료의 구성에 따라 강까지를 채택하고 필요하면 성악과 기악의 경우에는 목(目)까지 세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000 총류
- 050 반주 교습
- 100 세속적 성악
- 110 독창. 연편가곡중의 개개의 곡등의 독창과 가극중의 영창(aria)을 포함한다.
- 120 중창
- 130 합창. 다성부음악. 합창과 독창, 합창과 중창을 포함한다.
- 140 대가곡, 악극
- 150 회가곡, 경가곡 등
- 160 뮤지컬 쇼, 음악영화, 뮤지컬 플레이, 뮤지컬 코메디 등
- 170 극의 부대음악
- 180 TV 오페라, 필름, 라디오 등 음악
- 190 기타 무대음악
- 200 종교음악, 기독교, 천주교음악을 포함.
- 210 독창

- 220 성가대에 의한 음악
 - 특수주제만의 합창은 그 주제아래 분류
- 230 교회예배 및 의식음악(찬송가, 미사곡 등)
- 240 교회의식용이 아닌 음악
 - 성가(Anthem), 경문가(Motet), 중창가(Choral)
- 250 성가곡, 교성곡, 수난곡
 - 영창, 서창(Recitative)은 독창에 분류
- 260 크리스마스음악,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을 포함.
- 270 흑인영가
- 280 불교음악
- 290 기타 종교음악
- 300 대중음악
- 310 국가(National Anthem)
- 320 민요, 한국민요, 민속악은 국악에 분류.
- 330 경가곡. 학생가, 단체가, 국가 등
- 340 유행가 및 대중가요의 성악곡
- 350 유행가 및 대중가요의 기악곡
- 370 재즈음악
- 400 기악독주. 반주가 있는 독주악기를 포함
- 410 궁을 사용하는 현악기 독주
- 420 발현악기독주
- 430 관악기독주
- 440 타악기독주
- 450 전반악기독주
- 490 기타 악기의 독주. 아코디언, 하모니카 등
- 500 두개이상의 독주악기에 의한 연주 기악중주, 실내악을 포함
- 510 2중주
- 520 3중주
- 530 4중주
- 540 5중주
- 550 6중주
- 560 7중주
- 570 8중주
- 580 9중주이상
- 600 기악합주
- 610 관현악, 교향곡, 교향시, 서곡, 행진곡 등 소관현악을 포함, 한개의 독주악기와 관현악은 기악독주아래 분류
- 620 협주곡
- 630 현악합주
- 640 취주악합주
- 650 아코디언합주
- 660 하모니카 합주
- 670 목금합주
- 690 기타합주

- 700 국악
- 710 가곡 신가곡을 포함한다
- 720 가사(歌辭)
- 730 시조, 신시조를 포함
- 740 민속악, 민요
- 750 병창
- 760 기악독주
- 770 두개이상의 독주악기에 의한 연주.
실내악, 두개이상의 동일악기의 경우 포함
- 780 기악합주
- 790 한양기악(韓洋器樂)에 의한 국악
- 800 어린이용 레코드
810~890은 생략함
- 900 특수레코드
- 910 어학
- 920 연극
- 930 만담. 만담과 음악을 함께 녹음한 것도 포함
- 940 영화, 슬라이드, 인형극, 가요 등의 설명
- 950 체육
- 960 실황기록
- 970 강연, 강의
- 980 음의 녹음
- 990 문학낭독


이상과 같이 내용의 비중에 따라 음악에 8개류를 배정하고 기타에 어린이용 레코드와 특수레코드를 배정하여 류, 강만을 소개해 보았다. 특히 음악부문의 세목은 LC 분류표를 기본으로 삼았다.

여기서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류표에 의하여 주제를 대신한 경우는 독자들의 분류표에 대한 기억의 결여를 보충해주기 위하여 반드시 주제명색인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의 주제명색인에는 사무용전거카드와 열람용 주제명색인카드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카드작성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140 (가 곡)

x 대가곡 ; 실내가곡 ;
오페라


** 142(악곡) ; 150(회가곡)



(전거분류 카드 예)

가 곡

x 대가곡 ; 실내가곡
오페라




(내부색인 전거카드 예)

가 곡

은

140(가곡)을 보라




(열람용 카드 예)

오페라

은

가 곡 을 보라




(열람용 내부색인 카드 예)

140(가곡)

은

150(회가곡)도 보라



(분류목록의 전후참조카드의 예)

여기서 전거분류카드를 만들어 줄때는 이미 더욱 광범한 번호가 실제로 쓰여졌진 않건간에 상위의 번호에 대한 전거카드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140과 더불어 100(성악)에 대한 카드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